

###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



장흥 읍내로 들어서자 펼쳐지는 풍경이 다르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어지는 찾길, 그리 높지 않고 야트막한 산 능선, 각지 지 않고 구불구불한 논두렁은 눈을 평온하게 해준다. 야트막한 산이 품어 안고 기르는 것 또한 사납지 않고 연약하고 보드라운 것 같다. 직선을 따라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구불구불한 곡선은 급할 것 없으면서 '느림'을 일러준다.

보림사는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가지산문을 연 중심사찰이다. 도의 선사의 법손인 보조제징(804-880) 스님이 창건하였고 그때 조성한 절조 비로자나불상이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다. 일주문과 사천왕문 그리고 대적광전이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가람 배치가 낯설다. 가지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지만 대적광전, 대웅전, 미타전, 명부전, 종각 등 당우들이 특 트어진 하나의 넓은 공간에 들어서 있다. 도량 곳곳에 단풍나무, 회나무,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우뚝하니 서 있어 자칫 허전해 보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푸근하고도 살기운 곳으로 만들어준다.

지묵(智默) 스님은 푸른빛 연꽃이 그려진 하얀 다기에 찾길을 부으면서 야생 녹차라 맛이 다를 것이라 했다.

“녹차나무는 사람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차맛을 잃지 않아요. 보림사는 차나무의 성정을 거슬리지 않고 야생으로 키우고 싶어 풀도 베지 않고 그대로 두는 등 최소한의 손질만 합니다.”

“차나무 본위로 거르고 싶다”는 이 한 마디에 스님의 살림살이와 수행의 깊이를 다 알아버린 듯하다. 지묵 스님은 <죽비 깎는 아침>을 비롯하여 <산승일기> <날마다 좋은 날> <초발심자경문 강설> <육조 단경 강설> 등 스무 권도 훨씬 넘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출가자가 쓴 에세이집이 드물 때 법정 스님과 더불어 수행자의 삶과 절집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맛깔스럽게 대중들에게 들려주었다. 요즈음은 어떤 글을 쓰시는지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글 쓰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다는 뜻밖의 말씀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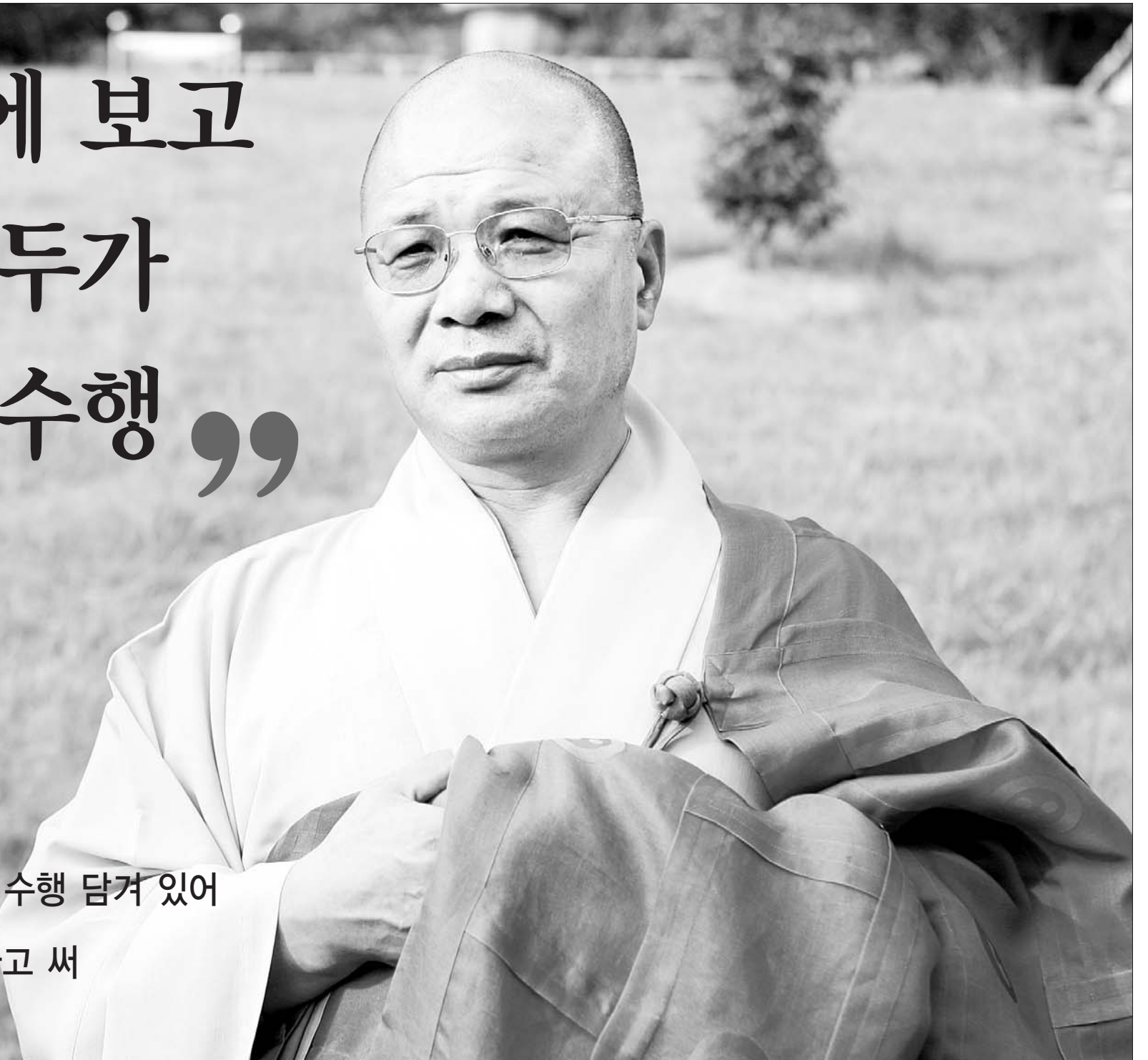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실 그 무렵 밥을 받아먹을 만큼,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할 만큼 많이 아팠어요. 법정 스님 장례식도 못가고 49재 때 송광사에만 겨우 갔어요.”

그때는 몸을 추스르지도 못할 만큼 아팠기에 설립 법정 스님이 “나를 데려 가실라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더라. 불교대학 강의실에 모셔진 아담한 불상을 가리키면서 “법정 스님이 보시하신 것인데, 퇴원하면 불상을 보러 오시겠다고 전화통화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생 동안 실질적인 법의 스승이자 정신적인 법의 스승이요 의지처였던 법정 스님의 열반은 아직도 애절하기만 하다.

이야기는 송광사에서 보낸 행사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미계를 받기 전에 산중 어른스님들에게 인

# “만행길에 보고 듣는 모두가 공부요 수행”

‘차나무 본위로 거르고 싶다’  
이 한 마디에 스님의 살림과 수행 담겨 있어  
글 쓸 때 옆에 ‘육법전서’ 놓고 써



사를 하러 다녔다. 불일암에 올라가 법정 스님께도 예를 올렸다. 법정 스님은 지묵 스님의 불명을 두고 “평생 종이와 먹이 따라다니겠구먼” 그랬다. 그 말씀에 “지묵필연(紙墨筆緣) 그런 뜻이 아닙니다”고 말씀드렸더니 “두고 보게. 평생 글 쓰고 그림도 그릴 것이네”하고 아주 장담을 하셨다. 1975년에 불일암이 단장되었고, 그때 돌층계와 돌담을 지묵 스님이 직접 쌓았다. 그 다음 해에 법정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어 불일암의 공양주를 자청했다. 1년 동안 저녁이면 가사장삼을 수하고 대해 스님의 <서장>을 배웠다. 법정 스님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서장>을 공부한 이 일은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법정 스님은 “내가 지묵 수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 수제비 끓이는 것하고, 돌담 쌓는 것 하고 각(刻)하는 것이야”하고 चु켜 세워주시곤 했다. 그만큼 지묵 스님의 손끝이 맵고 야무져 무엇을 해도 당신 마음에 꼭 든다는 말씀이기도 하다. 불일암의 돌담과 돌층계를 쌓은 지 스무 해가 넘었고 태풍이 지나간 횡수는 셀 수도 없건만 아직도 무탈한 것을 두고 법정 스님은 농(弄)처럼 ‘특수공법’으로

쌓아서 그렇다고 했다. 지묵 스님은 풀을 보면 인체를 보는 것처럼 눈과 머리, 몸통이 보인다고 하니 그 안목 자체가 특수공법이 아닌가 싶다.

“미국 LA에 있는 송광사 분원인 고려사로 포교를 위하여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법정 스님은 다락에 올라가서더니 신채호 선생의 <한국사> 상·하 권을 가져와서는 이것을 꼭 읽어보아야 한다면서 건네주시네요.”

행여나 미국에 가서 한국을 잊어버리고 한국역사를 잊어버릴 것을 우려하시어 당신의 손때 묻은 <한국사>를 건네주던 그 모습도 잊지 못할 일이라. 법정 스님은 당신이 연재하는 지면에 지묵 스님의 글을 싣도록 했고, 그렇게 하여 지묵 스님을 글쟁이로 데뷔시켜 주었다. 몇날 며칠을 두고 이야기하여도 법정 스님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와 추억은 쉬이 바삭이 날 것 같지 않다. 글 이야기나 나온 길에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란 다.

중에도 휴대용 버루를 지니고 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면 수첩에 메모를 해두었다가 저녁엔 이걸 참고로 휴대용 버루에 먹을 갈아 일기를 써요.”

스님은 무엇을 한 번 시작하면 중도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게 되는데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웃었다. 프랑스 작가인 스탕달이 <적과 흑>을 쓸 때 ‘법전’을 옆에 두고 썼듯이 지묵 스님 또한 수행자의 글에서 감성이 짙게 묻어나올 것을 염려하여 글을 쓸 때는 꼭 <육법전서>를 펴놓고 쓴다. 글 쓰는 것이 곧 수행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묵 스님은 6년 남짓 인도, 프랑스, 일본, 중국 등지로 수행을 위한 만행을 하였다. 이렇게 만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법정 스님의 격려와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수행했던 그 기록은 <나마스테> <봉주르 길상입니다> <달마와 혜능> 등 여러 권의 책으로 남아 있다. 일 년 동안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여행을 하였고, 법정 스님의 요청으로 프랑스 길상사에서 소임을 보기도 했다. 일본의 조동종 사찰인 덕림선사(德林禪寺) 초청으로 1년 동안 그곳에서 매설계

정진했다. 만행 길에서 보고 듣는 것은 다 공부라 되고 수행이 될 터이지만, 1년 동안 중국의 선종사찰을 순례한 것은 더욱 값진 공부였다. 1년 동안의 선종사찰순례를 위하여 중국의 산둥성 연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등 준비도 탄탄히 했다.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역사가 단절되고 종교가 잠들어 있어서 현장답사에서 무엇을 얻는다고보다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일깨우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대해 스님을 흠모하기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다녔다. 아욱왕사를 갔을 때는 지묵 스님의 허름한 차림새와 잡다한 참고자료로 30킬로그램은 족히 되는 가방을 보고서 떠돌이승이라 생각하여 홀대를 하더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화두선 종장인 대해 스님의 법향이 스며있는 곳이라 방장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멀리서 온 이방인이 <서장>에 대해 깊고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란 아욱왕사의 방장 스님은 가장 좋은 객사를 내어주더라. 선공기가 있는 방에서 당장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옮겨주는가 하면 옛 풍습 그대로 목욕할 뜨거운 물을 물지게로 저 날라주는 등 극진한 대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영향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결을 한지름 밑에서도 좋

###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부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해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겹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가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부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센스,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 반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반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